

또래와의 갈등 대처양식과 또래 괴롭힘의 가해·피해·친사회적 행동과의 횡·종단적인 관계

Children Coping with Peer Conflict :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Correlates of Bullying, Victim, and Prosocial Behavior

심 희 옥*

Sim, Hee Og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concurrent and prospective relationships of the coping strategies of 4th and 6th grade children in peer conflict focusing on bullying, victim, and prosocial behavior. Instruments were the Self-Report Coping Scale and the Peer Relations Questionnaire. Concurrent results of Study I showed children using more avoidance and fewer approach strategies were more likely to bullies or victims; and children using fewer avoidance and more approach coping strategies were more likely to be prosocial children. Externalizing best explained bullies and victims; seeking social support best explained prosocial children. Prospective results of Study II showed children using more externalizing and fewer problem solving were more likely to be bullies; and children employing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were more likely to be victims; and children using more seeking social support were more likely to be prosocial children. It was also found that externalizing at Time I best predicted bullies, internalizing best predicted victims, and seeking social support best predicted prosocial children.

Key Words : 대처양식(coping strategies),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bully and victim), 친
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가족아동학전공 조교수

I. 서론

아동의 원만한 대인관계는 현재의 사회적 능력과 미래의 사회적 적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Bijttebier & Vertommen, 1998; Hartup, 1989; Parker & Asher, 1987). “왜 어떤 아동은 다른 아이에 비해 인기가 없고 심하면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가,” “왜 어떤 아동은 타인을 괴롭히는데 어떤 아동은 친사회적 행동을 베푸는가”라는 주제는 요즘처럼 아이들의 또래환경에 염려와 우려를 불러 일으키는 여러 사건들 때문에 일반인과 연구자들의 관심을 끈다. 또래 관계가 원만하고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아동이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점은 아동의 심리적인 적응과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다.

스트레스와 대처양식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스트레스의 영향이 개개인이 사용하는 대처양식에 의해 적응에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대처(coping)란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내적이고 외적인 요구를 해결하려는 끊임없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이다(Lazarus & Folkman, 1984). 대처전략은 크게 문제 중심적인 전략과 정서 중심적인 전략으로 구분되고, 문제 중심적인 전략은 접근식 전략, 정서 중심적인 전략은 회피식 전략이라고도 한다. 전자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바꾸려고 행해지는 노력으로 스트레스(stressor)로 향한 행동적, 인지적 혹은 정서적인 노력을 의미하고, 후자는 스트레스 상황과 연결된 감정 상태를 조절하는 노력으로 스트레스를 멀리하려는 행동적, 인지적, 정서상의 전략을 의미한다(Compas, Malcarne, & Fondacaro, 1988; 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eLongis, & Gruen, 1986; Lazarus &

Folkman, 1984; Roth & Cohen, 1986).

갈등 대처양식과 또래관계와의 관련을 탐색한 연구들이 있다. 인기 있고 또래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아동은 가상의 문제 상황을 효율적이고 관계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 한다(심희옥, 2000; Erwin, 1993; Sim, 2001). 이처럼 또래와의 말다툼이나 싸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다를 수 있다. Bijttebier와 Vertommen (1998)은 4-6학년생을 대상으로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와 대처전략과의 관련을 탐색한 연구에서 또래 괴롭힘의 피해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것은 내면화와 관련이 있고, 또래 괴롭힘의 가해는 외면화 및 문제 해결력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Bernstein(1999)은 공격자와 괴롭힘을 당하는 9-13세 아동의 성격 특징과 문제해결 방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공격자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은 수줍어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가치기준이 달라 문제해결 양식이 다를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Menesini(1999)는 8-11세 아동의 관찰연구에서 또래를 괴롭히는 자와 피해자의 사회행동이 다를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래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자는 지배적이며 다른 사람을 규제하고,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은 순종적이고 상대방의 요구에 더 따르고 자주 설명을 요구했다. Karp, Mahady-Wilton과 Craig(1999)는 1-6학년생의 연구에서 적극적인 대처전략이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에게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Hyun(1999)은 10, 12, 14세 연구

에서 방어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아동이 행동문제를 더 보고하고 빈약한 사회적응을 보인다고 한다. 4, 5학년 대상의 종단연구에서 Ladd와 Skinner(2000)는 대처전략 중 문제해결은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감소시키고, 외면화 전략은 4학년에서 5학년까지의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증가시켰다고 한다.

Bowker, Bukowski, Hymel과 Sippola(2000)는 7학년 대상의 일상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연구에서 공격적이고 인기가 없는 학생이 부정적인 전략(타인의 소문 퍼뜨리기)을 더 사용하고, 인기 있고 공격적인 여학생이 문제 중심적인 전략을 사용한다고 한다. 위축된 학생이 문제 중심적인 전략은 적게 사용하고 반면에 정서 중심적인 전략은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볼 때 또래 괴롭힘의 가해나 피해자는 문제해결 양식이 서로 다르고 아동이 사용하는 어떤 대처양식은 또래 괴롭힘의 가해나 피해를 조장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듯 하다.

친사회적 행동이란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어떤 행동이든지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나보다 못한 사람과 무엇인가를 나누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거나 보호하고, 타인을 돕는 것, 칭찬으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 등이다(Shaffer, 1994). 학교 현장에서 왕따 같은 또래 괴롭힘이 문제가 되는 이 시점에서 아동들에게 발달시키고 싶은 심리적 특성은 친사회성일 것이다. 반 친구를 못살게 구는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말리거나 괴롭힘 당하는 아이를 측은하게 여기고 위로하는 행위가 많아지면 자연 또래 괴롭힘 문제와 이로 인한 부적절한 영향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아동의 친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다. 우리는 아직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의 유형이나 이들의 특성을 연구하고 있다(강진령, 유형근, 2000; 박금주, 2000; 한종철, 김인경, 김은정, 박윤창과 정태연, 1999; Austin & Joseph, 1996; Perry, Kusel, & Perry, 1988; Schwartz, Dodge, & Coie, 1993). 그러나 우리가 아동의 부적절한 또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들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게 하여야하고 서로가 타인을 염려하거나 배려하는 마음이 커지게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나 피해자 뿐 아니라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아동의 특성을 밝혀야한다.

Slee(1995a)는 중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친사회성을 보이는 학생일수록 사회적인 역기능과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친사회적일수록 사회적인 측면에서 기능적임을 알 수 있다. Slee(1995b)는 8-13세의 친사회적인 아동이 운동장에서 노는 것을 행복해 하고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싸움 같은 것에 대해 타협점을 잘 찾았다고 한다.

본 연구는 아동이 또래와 갈등이 일어날 때 사용하는 대처방식과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성이 횡단(연구 1)과 종단(연구 2)적으로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또래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변인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나 피해자는 똑같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이들은 비슷한 제한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래와의 갈등 대처양식과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성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횡단연구는 대인관계 갈등의 지금, 현재의 효과적인 대처양식을 밝힐 수 있게 해 줄 수 있고, 종단연구는 대처양식이 아동의 또

래관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알게 해 줄 수 있다.

연구 1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또래와의 갈등 대처양식은 동시기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2. 또래와의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 중 동시기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을 각각 설명해 주는 변인의 순서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연구 2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또래와의 갈등 대처양식은 2년 후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2. 또래와의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 중 나중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을 각각 설명해 주는 변인의 순서는 무엇인가?

II-1. 연구 1의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K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생 211명으로 남자가 110명(52.1%), 여자가 101명(47.9%)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 범위는 11-12세이고, 평균연령은 11.80세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4.1%, 대학교 졸업이 42.7%이고, 아버지의 구체적인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한 사람 중 자영 상공업이 31.3%이고, 사무직과 관리 및 전문직이 52.5%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66.8%이고, 대학교 졸업이 24.6%이었으며, 어머니의 구체적인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한 사람 중 자영 상공업이 19.0%이고, 사무직과 관리직이 5.6%이었다.

2. 측정 도구

(1) 대처양식

Causey와 Dubow(1992)가 만든 Self-Report Coping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초등학교생의 대인관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한 상황인, “친구와 말다툼하거나 싸웠을 때”에 아동은 어떤 대처를 하는지를 묻는다. 이 척도는 또래와의 갈등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는 5가지의 전략을 측정하는데, 문제를 멀리하거나 거리를 두려는(distancing) 전략 7문항, 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internalizing) 전략 7문항, 문제를 외적으로 풀려고 하는(externalizing) 전략 4문항, 사회적 지원을 찾는(seeking social support) 전략 8문항, 그리고 자신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려는(self-reliance/problem solving) 전략 8문항으로 총 3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결코 아니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제를 멀리하거나 거리를 두려는 전략 문항의 한 예는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척 한다”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는 문제를 멀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전략이 .72, 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이 .74, 문제를 외적으로 풀려고 하는 전략 .68이었고, 사회적 지원을 찾는 전략이 .81, 그리고 자신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이 .84이었다.

(2)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Peer Relation Questionnaire (Rigby & Slee, 1993)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질문의 두드러짐을 없애기 위한 보충 문항인 5문항을 포함해, 또래 괴롭힘의 가해를 묻는 6문항, 피해를 묻는 5문항, 친사회적 행동을 묻는 4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정도를 “결코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의 4점 척도로 평가한다. 또래 괴롭힘 가해 행동 문항의 한 예는 “나는 약한 애들을 괴롭힌다” 이고, 또래 괴롭힘 피해 문항의 한 예는 “다른 애들이 날 놀리고 괴롭힌다”이며, 친사회적 행동 문항의 한 예는 “나는 다른 애들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는 또래 괴롭힘의 가해는 .81, 피해는 .78, 친사회적 행동은 .63이었다.

3. 조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대상은 중소도시인 K시내에서 상중하의 경제적인 여건이 고루 섞인 초등학교 한곳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번안 과정에서 적합한 언어 선택과 이해를 위해 연구의 해당 연령 학생과 학교 선생님들의 자문을 구하여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질문지는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각 반 담임 선생님께 3일 동안 맡겨지고 각 반의 자유로운 시간에 응답하게 한 후 회수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의 또래와의 갈등 대처양식은 동시기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을, 연구문제 2의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을 가장 많이 설명해 주는 갈등 대처변인을 찾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III-1. 연구 1의 연구결과

1. 또래와의 갈등 대처양식은 동시기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연구 1의 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하여 또래와의 갈등 대처양식별 변량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표 1>과 같다. 또래와의 갈등이 일어날 때 취하는 대처양식의 사용 정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Time 2의 5가지의 또래 갈등 대처방식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X > M + SD$ 인 경우는 개개의 대처가 높은 집단, $M - SD < X < M$

+SD인 경우는 중간 집단, $X < M - SD$ 인 경우는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1>에 의하면, 문제와 거리두기, 내면화, 외면화 같은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아동일수록 동시기에 또래를 많이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지원 찾거나 문제해결로 또래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아동은 동시기의 또래 괴롭힘 가해에 덜 연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와 거리두기, 내면화, 외면화 같은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 쉽고, 사회적 지원 찾기와 문제해결로 또래와의 갈등

에 대처하는 아동일수록 또래로부터 희생되는 것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갈등을 문제와 거리 두기나 외면화로 대처하는 아동일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하며, 사회적 지원 찾기와 문제해결 같은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아동일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또래와의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 중 동시기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을 각각 설명해 주는 변인의 순서는 무엇인가?

연구 1의 연구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동시기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를 가장 잘 예측해 주는 변인은 외면화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내면화인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가 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나 행동은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또한 외면화, 내면화나 문제와 거리두기 같은 회피적인 갈등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동시기에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래와의 갈등에서 사회적 지원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동일수록 동시기에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였다.

<표 2> Time 2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피해·친사회적 행동을 예언해 주는 Time 2의 갈등 대처방법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변인	b	B	부분R ²	R ²	Adj-R ²
외면화	.31	.34	.21	.21****	
또래 괴롭힘 내면화	.12	.22	.03	.24**	
가해 상*	1.04	.17	.03	.27**	
문제해결	-.09	-.17	.02	.29**	.27
외면화	.22	.25	.13	.13****	
또래 괴롭힘 내면화	.12	.22	.04	.17**	
피해 문제와 거리두기	.07	.11	.01	.18*	.17
친사회적 사회적 지원 찾기	.11	.33	.23	.23****	
행동 문제해결	.10	.26	.05	.28****	.27

*성 : 여자=0, 남자=1.

*p<.10. **p<.01. ***p<.001. ****p<.0001.

<표 1> Time 2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피해·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Time 2의 또래와 갈등 대처양식별 변량분석

변인	문제와 거리두기				내면화				외면화				사회적 지원찾기				문제 해결			
	M	F	Duncan		M	F	Duncan		M	F	Duncan		M	F	Duncan		M	F	Duncan	
또래 괴롭힘 가해	상	10.00	F=5.21	A	상	11.21	F=10.80	A	상	11.44	F=15.26	A	상	8.32	F=4.16	A	상	8.24	F=3.04	A
	중	9.24	p<.01	A	중	9.02	p<.0001	B	중	9.14	p<.0001	B	중	9.06	p<.05	A	중	9.19	p<.05	A B
	하	7.86		B	하	7.83		B	하	7.51		C	하	10.31		B	하	9.97		B
또래 괴롭힘 피해	상	8.95	F=5.08	A	상	10.00	F=10.03	A	상	9.78	F=8.47	A	상	7.62	F=2.75	A	상	7.95	F=3.22	A
	중	8.30	p<.01	A	중	8.13	p<.0001	B	중	8.24	p<.001	B	중	8.07	p<.10	A B	중	7.96	p<.05	A
	하	6.89		B	하	6.70		C	하	6.81		C	하	9.17		B	하	9.35		B
친사회적 행동	상	10.13	F=3.33	A	상	10.24	F=0.00	NS	상	9.63	F=7.75	A	상	12.00	F=20.69	A	상	11.54	F=16.83	A
	중	10.07	p<.05	A	중	10.26			중	10.07	p<.001	A	중	10.15	p<.0001	B	중	10.27	p<.0001	B
	하	11.08		B	하	10.27			하	11.43		B	하	9.03		C	하	8.79		C

Ⅲ-2. 연구 2의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K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4학년 때 12월과 2년 후 6학년 때 12월에 행해졌다. 조사 대상자 수는 2년이라는 시간 경과로 200명 중 37명(18.5%)이 탈락해 163명으로 남자가 84명(51.5%), 여자가 79명(48.5%)이었다. 4학년 때 연구 대상자의 연령 범위는 9-10세이고, 평균연령은 9.80세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4.8%, 대학교 졸업이 38.0%이고, 아버지의 구체적인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한 사람 중 자영 상공업이 27.6%이고, 사무직과 관리직이 43.6%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64.4%이고, 대학교 졸업이 21.5%이었으며, 어머니의 구체적인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한 사람 중 자영 상공업이 15.3%이고, 사무직과 관리직이 7.3%이었다.

2. 측정 도구

(1) 대처양식

연구 1과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했고, 이 측

정도구의 Cronbach's α 는 문제를 멀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전략이 .69, 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이 .65, 문제를 외적으로 풀려고 하는 전략 .64이었고, 사회적 지원을 찾는 전략이 .71, 자신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이 .83이었다.

(2)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

연구 1과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했고,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는 또래 괴롭힘 가해는 .81, 피해는 .75, 친사회적 행동은 .61이었다.

3. 조사 절차 및 자료 분석

연구 1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Ⅲ-2. 연구 2의 연구결과

1. 또래와의 갈등 대처양식은 2년 후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연구 2의 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하여 또

래 갈등 대처양식별 변량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표 3>과 같다. 연구 1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양식을 상중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3>에 의하면, 2년 전에 외면화로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했던 아동일수록 또래를 괴롭히는 아동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2년 전에 친구와

<표 3> Time 2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피해·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Time 1의 또래와 갈등 대처양식별 변량분석

변인	문제와 거리두기				내면화				외면화				사회적 지원찾기				문제 해결			
	M	F	Duncan		M	F	Duncan		M	F	Duncan		M	F	Duncan		M	F	Duncan	
또래 괴롭힘 가해	상	10.00			상	10.11			상	10.96			상	9.20			상	8.19		
	중	9.10	F=1.33	NS	중	9.04	F=1.60	NS	중	9.17	F=9.50	A	중	9.45	F=2.25	NS	중	9.66	F=3.83	B
	하	8.81			하	8.85			하	7.74	p<.0001	B	하	8.14			하	8.56	p<.05	A B
또래 괴롭힘 피해	상	8.93			상	8.41	F=3.11	A	상	8.59	F=3.03	A	상	8.65			상	7.68		
	중	7.93	F=2.01	NS	중	8.17	p<.05	A	중	8.18	p<.05	A B	중	8.12	F=2.00	NS	중	7.94	F=1.09	NS
	하	7.51			하	6.60		B	하	6.97		B	하	7.14			하	8.70		
친사회적 행동	상	10.19			상	9.81			상	9.93			상	11.00	F=4.37	A	상	10.42		
	중	10.18	F=.21	NS	중	10.40	F=1.26	NS	중	10.24	F=.52	NS	중	10.32	p<.01	A B	중	10.31	F=1.09	NS
	하	10.45			하	9.85			하	10.48			하	9.32		B	하	9.70		

의 갈등을 자신을 믿고 문제를 해결했던 아동은 또래를 괴롭히는데 적게 연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면화나 외면화로 또래와의 갈등에 대처했던 아동일수록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갈등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을 찾았던 아동일수록 2년 후에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또래와의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 중 나중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을 각각 설명해 주는 변인의 순서는 무엇인가?

연구 2의 연구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2년 전의 또래와의 갈등 대처방법 중 또래 괴롭힘의 가해를 예언해 주는 변인의 순서는 첫째가 외면화, 두 번째가 성, 그 다음이 사회적 지원 찾기로 나타났다. 즉, 외면화를 많이 할수록 또래 괴롭힘의 가해에 더 연루되고, 또래 괴롭힘 가해에 남자가 여자보다 더 연루되고, 2년 전에 사회적 지원

을 찾음으로 또래와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아동일수록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Time 2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피해·친사회적 행동을 예언해 주는 Time 1의 갈등 대처방법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변인	b	B	부분R ²	R ²	Adj-R ²	
또래 괴롭힘 가해	외면화	.29	.34	.12	.12****	
	성 ^a	.94	.16	.02	.14*	
	사회적 지원 찾기	.07	.14	.02	.16*	.14
또래 괴롭힘 피해	내면화	.08	.16	.04	.04*	
	사회적 지원 찾기	.07	.15	.02	.06*	
	문제해결	-.09	-.21	.02	.08*	
친사회적 행동	문제와 거리두기	.07	.15	.02	.10*	.07
	사회적 지원 찾기	.08	.23	.05	.05****	
외면화	-.11	-.18	.03	.08**	.07	

^a성 : 여자=0, 남자=1.

*p<.10. *p<.05. **p<.01. ***p<.001. ****p<.0001.

또한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잘 설명해 주는 변인의 순서는 첫째가 내면화였다. 2년 전 내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였던 아동일수록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사회적 지원에 의존하고 문제와 거리를 두려는 대처전략 역시 또래로부터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의지나 행동은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는 것

과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의지는 또래로부터의 괴롭힘을 막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친사회적 행동은 2년 전에 사회적 지원을 찾

는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했을수록 보여지는 행동이고, 외면화 같은 대처양식은 친사회적 행동과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생과 6학년생을 대상으로 또래와 말다툼하거나 싸우는 문제가 일어날 때 아동의 대처방식과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성이 횡단과 종단적으로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갈등 대처양식 변인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먼저, 아동의 갈등 대처방식과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성과의 관련에 대한 횡단 연구(연구 1)와 종단(연구 2)연구를 서로 비교해 보면, 갈등 대처전략 중 회피식 방법과 접근식 전략의 영향은 횡단연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즉 또래 괴롭힘의 가해나 피해의 경우, 문제와 거리두기, 내면화, 외면화 같은 회피식 전략을 동시기에 많이 쓰는 아동이 또래 괴롭힘의 가해나 피해에 더 연루되고, 사회적 지원 찾기와 문제해결 같은 접근식 전략을 동시기에 많이 사용하는 아동이 또래 괴롭힘의 가해나 피해에 덜 연루되었다.

이는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나 피해자는 똑같이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다. 즉 이들은 대인관계 문제해결에서 비슷한 제한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에서 회피적인 방법을 많이 쓰는 아동일수록 동시기에 또래를 많이 괴롭히고 또한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갈등 대처전략

중 접근식 대처가 더 효율적이라고도 하고 상황에 따라 대처전략의 효율성은 다를 수 있다 (Compas, 1987)고 하지만, 본 연구에서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 피해자는 또래 갈등 해결에서 회피전략은 많이 사용하고 접근식 전략은 적게 사용함을 볼 때 또래와 다투거나 싸우는 갈등 대처에 접근식 전략이 원만한 또래관계에서는 더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또래관계에 2년 후까지 영향을 주는 대처전략은 또래 괴롭힘 가해의 경우, 외면화와 문제해결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외면화는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하기, 소리 지르기, 욕하기, 똥가 던지거나 치는 행위를 많이 했던 아동이 또래 괴롭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또래와의 갈등에서 문제해결 전략을 많이 사용했을수록 또래 괴롭힘 가해에 적게 연루되고 있다. 이는 원만한 또래관계에서 자신을 믿고 건전한 문제 해결방법을 생각해 보고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 하는 아동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또래 갈등 대처기술인가를 말해 준다. 이해할 수 있듯이 또래와의 갈등에서 걱정하기, 울기, 스스로에게 화내기 같은 내면화 대처양식은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게 할 수 있다. 이는 Bijttebier와 Vertommen(1998)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

들이 보여주는 또래 괴롭힘 피해자의 전형적인 특성이다.

다시 말하면, 또래 괴롭힘 피해의 경우, 동시기의 회피적 전략은 아동에게 또래로부터 희생물이 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접근식 전략은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적게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처양식을 집단으로 나눌 때 문제해결 전략의 사용정도는 2년 후의 또래 괴롭힘의 피해 정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제해결과 또래 괴롭힘의 피해와의 상관은 $r=-.15(p<.05)$ 로 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 인지, 정서적인 노력은 분명히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적게 당하게 해 줄 수 있음을 말해준다.

친사회적 행동의 경우, 횡단적으로, 문제와 거리두기나 외면화 전략을 적게 사용하고 사회적 지원 찾기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아동이 친사회적이었다. 종단적으로는, 친사회적 행동을 행하는 아동일수록 과거에 또래와의 갈등을 사회적 지원을 찾아 문제를 해결했다. 자신의 기분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충고나 도움을 청하는 생활태도가 친사회적 행동에 장기적으로 기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내면화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적 지원을 찾아 나서는 것의 영향이 2년 후까지도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을 요한다. 이는 Slee(1995a)의 연구처럼 사회적인 측면과 친사회성이 정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대처양식 변인에 대해 횡단연구의 경우, 또래 괴롭힘의 가해를 외면화가 가장 많이 설명해 주고 그 다음은 내면화이고 문제해결 전략은 괴롭힘 가해에 덜 연루되게 하였다. 갈등을 외면화나 내면화해 버리는

아동이 또래 괴롭힘 가해에 많이 연루되고, 똑같이 갈등을 외면화나 내면화해 버리는 아동일수록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또한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기의 또래 괴롭힘의 피해는 본 연구의 3가지 회피전략, 외면화, 내면화, 그리고 문제와 거리두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또래로부터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래와의 갈등을 회피해 해결하는 것은 또래 괴롭힘의 가해나 피해 같은 원만하지 못한 또래관계를 초래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접근식 대처양식만이 친사회적 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는데 기여하는데 이는 사회적 지원 찾기, 문제 해결 같은 접근식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아동이 친구에게 더 호의적이고 협조적임을 나타낸다.

종단연구를 보면, 외면화가 2년 후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를 가장 많이 설명해 주고 있다. 이는 갈등을 외적으로 푸는 것이 또래에게 많은 해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말해준다. 예측할 수 있듯이 남자가 여자보다 괴롭힘 가해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ime 1에서 사회적 지원을 찾아 또래와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던 아동일수록 Time 2에서 또래를 괴롭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집단을 나눌 때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지만 사회적 지원과 또래 괴롭힘 가해간의 상관은 $r=.15(p<.05)$ 이고, 회귀분석에서는 사회적 지원이 외면화와 성과 더불어 또래 괴롭힘 가해를 2% 더 설명해주고 있다. 본 연구로는 이 사회적 지원의 출처를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친구의 지원이 반사회적 행동과 정적으로 관련되고(심회옥, 1999), 비행 친구가 있을 경우 더 비행 행동에 가담(Brendgen & Vitaro, 1998)함을 볼 때 만일 아동이 비행 또래에게서 정서적 지원

을 많이 받는다면 또래를 괴롭히는 일 같은 것에 더 가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래 괴롭힘 피해의 경우, 내면화가 가장 많이 기여하는데 이는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이 잘 울고 주장적이지 못하다는 연구(한종철 외, 1999; Blatchford, 1998; Olweus, 1993; Rigby, 1996; Schwartz et al., 1993)와 일치하는 것이다. 사회적 지원 찾기 전략은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마찬가지로 피해 역시 정적으로 관련되어 사회적 지원을 찾았던 아동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또래를 더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로 이런 관련을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혼자 힘으로 대인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타인이나 가족에게 의지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원만한 또래관계를 방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막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갈등 문제를 거리두기 같은 문제에 직면이 아닌 회피적인 전략으로 풀려고 하는 것은 또래 괴롭힘 피해의 표적이 되게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원 찾기가 2년 후의 친사회적 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데 가장 많이 기여하는데, 여기서의 사회적 지원요청은 친사회적인 아동이 타인에 대한 배려나 염려가 높고 사회성이 좋은 것을 생각할 때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가 얻은 사회적 지원과는 달리 긍정적인 사회, 정서적 지원이었을 것이다.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외부로 발산했던 아동은 당연히 친사회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나 가해자는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슷한 제한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이들은 또래와 말다툼하거나 싸울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접근식 전략은 적게, 회피식 전략은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그

리고 과거의 사회적 지원 추구가 또래 괴롭힘의 가해나 피해와 정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볼 때 같은 접근식 대처방법이지만 궁극적으로 유익한 전략은 자신을 믿고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으로 보여진다.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아동은 분명히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나 피해자와는 다른 갈등 대처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회피식 전략은 적게, 접근식 전략은 많이 사용한다. 특히 친사회적인 아동은 문제와 거리두기나 내면화 같은 부적응적인 전략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듯 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표집은 한 도시의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자료수집이 자기보고에만 의존해 결과의 해석에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인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에 대한 자기보고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의 다양한 또래관계와 관련된 갈등 대처양식 변인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 즉, 대인관계 갈등에서 지금, 현재의 효과적인 대처양식은 어느 것이고 또한 어느 대처양식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한다. 첫째, 또래 괴롭힘의 유형을 가해나 피해와 더불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한종철, 김인경, 김은정, 박윤창과 정태연, 1999; Austin & Joseph, 1996)들이 있는데 이처럼 가해, 피해, 가해/피해를 세분하는 등 보다 다양한 또래관계와 갈등상황 대처양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둘째, 상황에 따른 여러 대처전략의 효율성

문제에 대한 연구이다. Compas(1987)는 스트레스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에 문제중심, 정서중심의 대처전략 둘 다 중요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상황에 따라 이들의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과연 어느 상황에서 어느 대처전략이 효율적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대처양식의 발달적인 변화가 시사되고(Altshuler & Ruble, 1989; Compas, Banez, Malcarne, Worsham, 1991; Compas, Orosan, Grant, 1993) 있어 좀더 시간의 차를 둔 중단연구가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 강진령, 유형근(2000). 집단 괴롭힘. 서울 : 학지사.
- 곽금주(2000). 또래간 사회적 관계 : 부정적 측면에 관한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3(3), 77-89.
- 심희옥(1999).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과 가족·친구의 지원 및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6), 11-22.
- 심희옥(2000). 또래지지와 대인관계 갈등 대처방법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1(1), 19-33.
- 한종철, 김인경, 김은정, 박윤창, 장태연(1999).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 1차 연구. 한국심리학회 1999년도 연차학술대회.
- Altshuler, J. L., & Ruble, D. N. (1989). Developmental changes in children's awareness of strategies for coping with uncontrollable stress. *Child Development*, 60, 1337-1349.
- Austin, S., & Joseph, S. (1996). Assessment of bully/victim problems in 8 to 11 year-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 447-456.
- Bernstein, J. (1999, April). *Problem-solving styles of aggressive and victimized children : The aggressor/victim system*.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Albuquerque, NM.
- Bijttebier, P., & Vertommen, H. (1998). Coping with peer arguments in school-age children with bully/victim problem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8, 387-394.
- Blatchford, P. (1998). *Social life in school : Pupils' experience of breaktime and recess from 7 to 16 years*. London : The Falmer Press.
- Bowker, A., Bukowski, W. M., Hymel, S., & Sippola, L. K. (2000). Coping with daily hassles in the peer group during early adolescence : Variations as a function of peer experi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0(2), 211-243.
- Brendgen, M., & Vitaro, F. (1998). *Deviant friends and their effects on early adolescent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Adolescence, San Diego, California.
- Causey, D. L., & Dubow, E. F. (1992). Development of a self-report coping measur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1), 47-59.
- Compas, B. E. (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3), 393-403.
- Compas, B. E., Banez, G. A., Malcarne, B., Worsham, N. (1991). Perceived control and coping with stress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47(4), 23-34.
- Compas, B. E., Malcarne, V. L., & Fondacaro, K. M. (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3), 405-411.
- Compas, B. E., Orosan, P. G., & Grant, K. E. (1993). Adolescent stress and coping : Implications for psychopathology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6, 331-349.
- Erwin, P. (1993). *Friendship and peer relations in children*. West Sussex : John Wiley & Sons.
- Folkman, S., Lazarus, R., Dunkel-Schetter, C., DeLongis, A., & Gruen, R. J. (1986). Dynamics of a stressful encounter :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92-1003.
- Hartup, W. W. (1989). Social relation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American Psychologist*, 44(2), 120-126.
- Hyun, O. (1999, April). *Effects of stress coping behaviors on social adjustment in childhood*.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Albuquerque, NM.
- Karp, J. A., Mahady-Wilton, M., & Craig, W. M. (1999). *A comparison of the coping behaviors of victims of bullying on the playground and in the classroom*.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Albuquerque, NM.
- Ladd, B. K., & Skinner, K. (2000, March). Children's coping strategies : Moderators of the effects of peer victimization. In J. Juvonen (Chair), *Harassment across diverse contexts*. Poster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Adolescence, Chicago, IL.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 Menesini, E. (1999, April). Interactional style of bullies and victims : Individual and contextual analyses. In R. R. Myron-Wilson, & K. C. Masden (Chair), *The personal and family backgrounds of children involved in bullying*. Poster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Albuquerque, NM.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 Blackwell.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Rigby, K., & Slee, P. T. (1993). Dimens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 among Australian children and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3(1), 33-42.
- Rigby, K. (1996). *Bullying in schools : And what to do about it*. London : Jessica Kingsley.
- Roth, S., & Cohen, L. J. (1986). Approach, avoidance, and coping with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1, 813-819.
- Schwartz, D., Dodge, K. A., & Coie, J. 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 Shaffer, D. R. (1994).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3rd.). Pacific Grove, CA : Brooks/Cole.
- Sim, H. (2001, April).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strategies and peer support and in the usage of coping strategie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Minneapolis, Minnesota.
- Slee, P. T. (1995a). Bullying : Health concerns of Australian secondary schoo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5, 215-224.
- Slee, P. T. (1995b). Bullying in the playground : The impact of inter-personal violence on Australian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lay environment. *Children's Environments*, 12(3), 320-327.